

1976學年度 碩士學位 請求 論文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指導教授 李 丙 曠

東國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榮 敦

TD
390
76642
22

1976學年度 碩士學位 請求 論文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指導教授 李 丙 疇 教 授

主 審 教 授

副 審 教 授

副 審 教 授

審查年月日 1977年 月 日

東國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學科

金 榮 敦

53063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

金 榮 敦

目 次	
I. 緒 言	實主義의 性格
II. 本 論	3. 內容으로 본 濟州島 民謠의 現實主義의 性格
1. 濟州島 民謠의 時空의 背景	4. 濟州島 童謠에 드러난 現實主義의 生活觀
1) 民謠와 民衆生活	
2) 濟州島의 地理·歷史的 惡條件	
2. 謠種으로 본 濟州島 民謠의 現	III. 結 論

I. 緒 言

民謠는 傳來的 民間生活 全領域을 統計數字 이상으로 사뭇 精確하게 集約한다. 모든 民間傳承이 그렇듯, 바로 오늘날의 民間生活 全般과 直結된다. 자칫 曲解되 듯, 民謠는 基層文化의 始源的 形態로 化石化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民謠는 죽어 시들어 버린 게 아니라, 싱싱히 살아 있으면서 民衆을 規律하고 鼓舞하며 그들의 生活觀 일체를 反映한다.

民謠는 또한 ‘沈降의 文化財’(gesunkenes Kulturgut)일 수 없으니 貴族的 記錄文學이 民衆들의 口碑文學에 沈降하여 깊은 영향을 입힌다는 나우만(Hans Naumann)이나 웰렉(René Welleck)과 워어린(Austin Warren)의 見解¹⁾

注 1) Without going to the extreme of folklorists such as Hans Naumann who consider most later oral literature *gesunkenes Kulturgut*, we can recognize that written upper-class literature has profoundly affected oral literature.nevertheless popular ballads, fairy tales, and legends as we know them are frequently of late origin and upper-class derivation. (René Welleck, &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London' Harcourt Brace & World, 1970,) p. 47

에 贊同할 수 없다. 그 영향이야 있게 마련이지만 原質의인 것일 수 없으며, 正統的인 民謠를 基準한다면 微微한 것이라 본다. 民謠는 本領的으로 民衆들만에 의한 創作, 享有物이며, 오늘날 現傳되는 民謠는 幾何級數的으로 늘어난, 無數한 사람들의 參與에 따라 이룩된 結晶이긴 하지만 우리에게서 遊離돼 버린 게 아니라 民間의 日常生活의 根幹을 이룬다. 그러므로 우리는 民謠라는 프리즘을 통하여 民間生活 일체를 透視할 수 있으며 우리의 傳統意識을 分解할 수 있다.

近者 韓國民謠에 대한 관심과 研究가 다른 口碑文學(oral literature, littérature orale, mündliche Dichtung) 考究와 더불어 무척 高調되는 듯 보이지만, 아직도 初步的 段階에 머물러 있음이 사실이다. 우선 가장 根幹의 作業인 地域, 地域의 民謠에 대한 錄音·採錄·採譜 作業조차 遼遠한 實狀이니, 그 解說이나 理論化 作業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有能한 傳承者의 잇따른 他界의 超速度의 社會改變으로 인한 傳承의 改變·斷切 때문에 珍重한 口碑文學 資料蒐集 자체의 時間的 有限성에 留意할 때, 우리는 이 作業의 重要性을 再認識하면서 焦眉之急의 召命感을 切感하지 않을 수 없다.

民謠에 대한 研究, 分析의 觀點은 識眼에 따라 다르겠으나, 文學的 研究, 國文學的 研究, 民俗學的(혹은 文化人類學的) 研究, 音樂的 研究 등 4 側面을 前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4 側面 가운데서 어느 한 側面만을 強調하거나 偏重할 수는 없는 것이, 이들은 民謠 分析에 있어 다 같이 切要한 것이며 相互融攝關係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本稿에서는 論議의 대상을 濟州島 民謠에 局限하고 그 時空의 背景을 살핀 다음, 특히 勞動謠를 중심으로 謠種과 內容을 分析하고, 濟州島와 韓本土의 童謠를 對比하는 가운데 島民의 現實主義의 生活觀을 究明해 보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本稿에서는 民俗學的, 文學的 考究가 並行되는 셈이다. 例謠 資料는 便宜上 拙著 '濟州島民謠研究 上'(一潮閣, 1965)을 택한다. 民謠에 나타난 生活觀의 考究는 韓國文學과 民俗學, 특히 口碑文學

研究에 이바지할 것이며, 濟州島研究에도 도움이 되리라 스스로 믿는다.

筆者는 濟州島 民謠를 대상으로 몇 가지 側面에서 考究하여 왔는데²⁾, 여기서는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現實主義的 生活觀만을 論議의 대상으로 삼는다. 곧 時空的 惡條件으로 말미암아 참담한 境地로 몰리고도 가부러져지는 일 없이 不敗의 信念을 확호하게 지닌 채 生活 第一線으로 뛰어들어 自己 스스로를 開拓해 나가는 濟州島民의 現實主義的 生活意志를 民謠를 통해 考究하려는 것이다. 물론 他國이나 다른 地方의 民謠에서처럼, 濟州島 民謠에서 역시 아름다운 꿈과 소원 및 즐거움을 노래한 民謠들도 드러나지만, 이에 대한 考究는 後日로 미룬다.

어차피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의 考究는 濟州島 民謠의 特性을 밝히는 作業의 一部다. 濟州島 民謠의 特性은 濟州島의 特性 그것이라 해도 좋다. 濟州島의 傳來的 文化樣相이 個性 짙은 것이 사실이라면, 濟州島의 文化의 色彩가 強烈하면 할수록 濟州島 民謠의 位相 역시 짙은 個性을 띠기 마련이다. 個性 짙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濟州島民의 文化를 類型化(patterning)하는 作業自體가 아직은 요원한 상태다. 濟州島의 文化類型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民謠 篇篇에 대한 精確한 分析은 이

注 2) 民謠를 考究한 主要 抽稿는 다음과 같다.

濟州島民謠에 있어서의 譬喩法修辭(‘국어국문학’ 通卷 22, 1960)

濟州島民謠의 韻誦的 表現(‘濟大學報’ 3號, 1960)

濟州島民謠論(‘現代文學’ 通卷 2, 1962)

濟州島民謠에서 본 어머니 사랑(‘제주도’ 通卷 2, 1962)

濟州島民謠와 道民의 꿈(‘제주도’ 通卷 4, 1962)

濟州島民謠論(‘現代文學’ 通卷 95, 1962)

濟州島民謠의 種類上 特色(‘제주도’ 通卷 9, 1963)

濟州島民謠의 內容上 特色(‘濟大學報’ 5號, 1963)

濟州島民謠의 形態上 特色(‘제주도’ 通卷 12, 1963)

濟州島民謠의 分布와 風土(‘國文學報’ 2號, 1964)

濟州島民謠에서의 不敗의 信念(‘국어국문학’ 通卷 27, 1964)

俗談과 民謠의 交流(‘제주도’ 通卷 27, 1966)

濟州島民謠에 비친 서울(‘李崇寧博士頌壽記念論叢’ 1968)

濟州島民謠와 石多(‘韓國民俗學’ 通卷 3, 1970)

濟州島民謠의 位相(‘교육제주’ 通卷 18, 1972)

海女노래와 海女(‘國語國文學論叢’ 李崇寧博士古稀記念論文集’ 1977)

濟州島의 勞動謠(‘文化人類學’ 8輯, 1977)

록될 수 없다. 말하자면, 濟州島 민요篇篇을 제대로 分析하기 위해서는 濟州島의 自然地理·人文地理를 알아야 하고, 記錄·非記錄의 歷史的 背景이 밝혀져야 한다. 家族·親族組織을 비롯한 公式·非公式組織이 分析되어야 할 것이요, 經濟·慣習·信仰·生産技術·道具·衣食住를 알아야 하며, 民俗藝術과 口碑傳承 全般 및 言語가 파악되어야 한다. 그 地域에 대한 人文·社會·自然科學 全領域에 걸친 體系的 補助科學의 지원이 없이는 民謠 篇篇에 대한 分析作業이 보람차게 이룩될 수 없다. 이 全領域에 걸친 濟州島 研究는 分野에 따라 進境의 差는 있으나 대체로 未成熟한 狀態다. 必須不可缺의 補助科學이 未成熟한 現況으로는 民謠의 特性究明作業의 限界를 의식해야 한다. 整理·分析·研鑽의 終着驛의 作業인 特性 究明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II. 本 論

1. 濟州島 民謠의 時空的 背景

1) 民謠와 民衆生活

創作文學이나 다른 口碑文學과 유다른 民謠의 特異性格이라면, 첫째, 가장 民衆的이라는 점, 둘째, 自足的 性格을 띠면서 機能的이라는 점과 아울러, 셋째, 地域的 特異性을 두드러지게 띠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民謠의 位相이 民衆的·機能的·地域的이라 함은 民謠는 곧 그 民謠가 歌唱되는 地域의 民衆生活 全般과 直結된다는 말과 相通된다. 民謠와 民衆生活과의 密着性을 검미어 교수(Gummere)는 “主觀的이며, 冥想的이며 感傷的이라는 사실은 群集所產의 詩에는 있을 수 없는 특징이다. ……傳統的 民謠의 話法은 日常言語 그 자체처럼 자연스럽고, 단순하고, 客觀的이며, 實生活에 密着하고 있다.”³⁾고 말했다.

注 3) The subjective, the reflective, the sentimental, are characteristics impossible in through-made verse……the diction of a traditional ballad is spontaneous, simple, objective as speech itself, and close to actual life……” (Herbert Read : *The Phases of English Poetry*, London, Faber & Faber, 1948, p. 27)

民謠가 機能的이란 말 역시 民謠가 民間生活과 密着되어 있다는 말이 된다. 그 가장 具體的인 論據는 民謠의 本領이 勞動謠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民謠는 勞動謠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民謠의 發生을 勞動謠에서 구하려는 見解는 폭넓게 擴大 해석할 수도 있다. ‘勞動’이란 말을 人間의 社會的 行動, 곧, 사람들과 함께 사람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行爲의 일체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면, 소위 民謠로서 勞動謠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할 것도 없이 勞動이란 無償的·自目的的 行爲가 아니라 有償的·他目的的 行爲다. 곧, 實利主義的 行爲다. 어떤 種類의 民謠든, 勞動謠든 非勞動謠든, 民謠 모두가 源泉의으로는 勞動謠라 해석할 수 있다면, 民謠는 本質的으로 現實性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民謠가 本質的으로 現實性을 띠고 있음이 사실이라 한다면, 또한 民謠는 그 機能性이 다른 口碑文學에 비해서도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가장 民衆的이요 더욱 機能的인 것이 다른 口碑文學과 다른 民謠의 특징이라면, 동시에 民謠는 자연 地域의 特異性을 띠게 마련이다. 民衆들의 共同制作이요, 共同享有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모든 口碑文學은 그 地域 地域마다의 特異性을 지니게 마련이지만, 民謠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다. 가장 民衆的이기 때문 民衆意識 全般이 뭉뚱그려져 드러나게 되며, 가장 機能的이기 때문에 民間生活 全般이 어김없이 드러나게 된다. 民間의 日

注 4) 수많은 勞動謠 外에 儀式謠를 따로 定立할 수 있지만, 祭禮나 儀式도 勞動謠의 一種이다. 그것을 履行하지 않으면 安康한 生活을 이어갈 수 없다고 여겨왔으므로, 그 必要性은 살을 生産하는 일에 못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葬禮儀式謠인 ‘行喪노래’나 ‘달구노래’는 行喪하거나 달구지길하는 일이 바로 勞動이네 勞動謠로 보기에 전혀 어렵지 않다. 情戀謠(love songs)만 하더라도 民間宗教와 마찬가지로 더욱 具體的인 用途가 마땅한 것이다. 勸酒하는 民謠를 역시 원래는 一種의 勞動謠였으니, 맞이한 손님을 歡待하면서 거어코 醉하게 해야 되겠다는 重要的 社會的 任務가 취마랐기 때문이다. 아기를 잠게우는 일 역시 험거운 勞動이라 볼 때, 자장가 또한 勞動謠의 範疇 內에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보아 간다면, 日本 柳田國男의 主張처럼 雜謠라고 이를 수 있는 民謠란 있을 수 없다는 말이 된다. 民謠란 반드시 이게 소용되는 경우, 곧 目的이 있고, 그것은 總括하여 作業이라 이름할 수 있을 것이다. 記錄文學에는 文藝를 위한 文藝라는 게 일찍부터 있었지만, 口碑文學에는 最近까지도 더욱 具體的인 用途가 마땅었다고 본다.

常的 經濟活動·文化活動·社會活動 全域에 걸친 그들의 實態, 그들의 意慾, 그들의 情緒가 集約된 것이 바로 民謠인 것이니, 그 地域의 地理·歷史·民俗·產業·宗教·經濟 등등은 물론이요, 그 地域의 社會構造와 그 地域民의 思考樣態를 가장 縮約해 있기 마련이다. 바꿔 말하자면 韓國의 民謠 한 篇 한 篇 속에는 韓國의 地理·歷史·民俗·產業·宗教·經濟 등과 韓國의 社會構造 및 思考樣態가 그대로 응결돼 있는 것이다.

따라서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住民의 生活觀 등 그 特質의 考究를 위해서는 다시 말하거나와 濟州島 文化의 類型化(patterning)作業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濟州島의 文化的 狀況의 究明이 따라야 할 것이다. 질린(J. Gillin)에 따르면 文化的 狀況의 構成은, 첫째, 人的인 構造, 곧 人種의·民族의 特質, 둘째, 自然的 環境, 셋째, 社會的 潛勢力(social potentialities) 곧 集團의 數의인 크기·人口分布·社會構成·分化·個人差 등 넷째, 外國文化의 影響으로 성립된다 한다.⁵⁾ 이런 類의 構造的 分析은 편린적으로나마 民謠에 드러난 現實性의 背景을 論議할 때 接近하려 한다.

2) 濟州島의 地理·歷史的 惡條件

民謠는 歌唱되는 地域의 民衆生活 全般과 直結된다고 볼 때,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을 考究하려면, 民謠를 낳은 濟州島 社會의 時空의 背景을 살펴 봐야 한다.

濟州島는 그 立地的·自然的 條件이 不利하여 소위 ‘環海天險의 섬’인 데다가 이에 덮쳐 참혹한 支配의 歷史가 흘러갔다.

濟州島는 周知하는 바와 같이 漢拏山(釜岳 1950m)을 主峰으로 하여 이루어진 一大 火山島였다. 漢拏山 주변에는 漢拏山을 女王처럼 모시는, 約 330個에 달하는 側火山(오름·오름)이 傾斜를 이루며, 바다로 떨어내린 地表 위에 點點이 솟아 있다. 한 主峰을 중심하여 수많은 側火山들이 이처럼 둘러싼 경우는 세계적으로 그 類例가 드문 일로서, 濟州島 特유의 風

注 5) J. Gillin *The ways of Men,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1948, pp. 198~220)

光明美한 奇觀을 낳았다. 火山島 特有의 變化無雙한 岩石美를 드러냈으며 잇달은 火山 폭발로 말미암아 賞嘆할 만한 谿谷과 洞窟이 이루어졌다. 그 火山活動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有史 이래 火山活動에 대한 記錄은 國內에서 濟州만이 지니고 있다. 곧 '高麗史' 地理志에 따르면 11世紀 초, 곧 穆宗 5年(1002年)과 同 10年(1007年) 두번에 걸친 火山의 폭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透水性이 강한 玄武岩으로 地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濟州島에는 地表에 水量이 적고, 따라서 논이 드물다. 제주도의 경우 밭과 논의 비율은 約 50對 1이다. 더구나 그 農土는 대부분 火山灰土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주 瘠薄한 壤인메다가 옛부터 그 主食은 보리와 조일 수밖에 없다.

地表의 透水性이 강하기 때문에 山을 흐르는 물은 海岸에 이르러 湧泉한다. 中山間 마을 住民들로서는 飲料水 때문에 困惑을 치러 왔다. 濟州島 聚落의 70% 이상이 海岸을 뺀 陸地를 이루어진 것도 이로 因함으로 近者 飲料水難 解決이 主要施策으로 定立되어 '물문제 해결'에 總力을 기울이는 實情에 있다. 이 食水難은 島民의 生活을 저들게 했다.

더구나 濟州島는 소위 '風多의 섬', 해마다 닷새에 하루는 暴風이거나 暴風警報이니 단연 國內에서 類例를 찾아볼 수 없는 強風地域인 것이다.

산땡	흐나	못산땡	흐나
저	양지에	지미나	보라
한락산의		전	섬의
아저문사		나	섬의

語釋 : 산다 하든 못 산다 하든
 저 열굴에 기미나 보라
 한라산의 온 섬의 바람
 가져다가 내 섬에 뒀다.

類例가 드문 強風地帶이며, 漢拏山을 휘돌아쳐 부는 全島의 바람이 내

注 6) 拙著 '濟州島民謠研究, 上' (一潮閣, 1965) 前掲書, 옛돌·방아노래, 謠 686.

얼굴에 몰아칠 때면, 내 얼굴에 애꿎게 낀 기미마저도 날려 버릴 수 있으리라 想定하는 위와 같은 노래도 불린다. 특히 三冬의 西北季節風은 맹렬한 것이어서 平均 5.5m를 上廻하는가 하면, 심한 경우는 20m를 오르내리는 海風이다. 金尙憲의 ‘南槎錄’에서도 그 北風의 영향과 이로 말미암은 漢拏山 南北의 差異를 다음과 같이 어련하게 記錄하기도 했다.

南溟小乘에 의하면 漢拏山 北쪽은 언제나 北風이 심한데 八方의 바람 가운데 北風은 가장 세차기 때문에 제주 고을의 나무들은 다 남쪽으로 기울어져 모지라진 비와 같고, 바람이 일 적마다 물방울은 비처럼 뿌리므로 바다쪽 10里間의 草木들은 모두 짙맛으로 덮여 있다. 旌義·大靜 2縣 地境은 예로부터 北風이 없다. 漢拏山 北쪽은 바람이 하늘을 흔들며 바다를 뒤엎으나, 山南은 잔풀도 움직일 바람이 없기 때문에, 二縣이 濟州 고을보다 한층 더 더우며 瘴氣 또한 심하다.⁷⁾

한편 地殼은 火山灰土로 덮였으므로 農土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農家 家口當 平均 耕地面積은 0.888ha에 불과하다. 더구나 田地에는 岩盤이 다 돌멩이가 無數히 박혀 있어서 밭들의 넓이는 고작 5~6千坪 정도이므로 農夫들은 안타깝게도 代代로 零細性에 허덕일 밖에 없었다. 따라서 住民들은 가장 基幹되는 衣食住 解決을 위해서도 勤勤懇懇해야 했다.

비좁고 메마른 農土를 터전으로 간신히 살아가는 島民들에겐 더구나 強風과 豪雨와 旱災~三災가 때때로 덮이고 보니 자연 飢饉에 餓死者가 續出 하기도 했었다. 그 代表的인 例는 1670~71年과 1764~96年의 경우일 것이다. 이 가운데도 1794年(甲寅, 正祖 18年)의 凶年은 소위 ‘甲寅年 凶年’이라 해서 島民들에게 널리 알려 있어 凶年하면 반드시 이야기되는 民譚이다.

어떤 주년 밥 제경 낭곡

어떤 주년 옷 제경 낭곡

注 7) 南溟小乘 漢拏以北 恒多以北 恒多北風 八方之風 北風最勁 故濟州一境 樹木皆南指 若禿髻 每風起 噴沫如雨 近海十里間 草木皆着膩氣 二縣之境 恒古無北風 山北雖掀天倒海 而山南則 細草不動 故地暖一倍 而瘴氣 亦甚矣。(金尙憲 ‘南槎錄’)

밥도 옷도 안 제긴 몸은
 눈물만 제건 나 낳아싱가.⁸⁾

語釋 : 어떤 자네는 밥 지너 나고
 어떤 자네는 옷 지너 나고
 밥도 옷도 안 지닌 몸은
 눈물만 지너 내 낳는가.

살아가는 데 基幹이 되는 衣食住 문제가 如意하지 않게 될 때, 前生の 八字를 헤아리게 됨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워낙 僅僅히들 살아가는데다 지나 깨나 일에 시달리고 보니, 치마를 마련할 능력이나 여유조차 없었던 듯, 淸陰의 ‘南槎錄’에 보더라도 “婦人無裙云云”⁹⁾한 記錄이 보인다.

따라서 住居 역시 質樸하고 기와집은 정말 드문 편이어서, 온돌 또한 마련되지 않았었다. 金淨의 ‘濟州風土錄’의 記錄은 예전의 住宅構造를 여실히 말해 준다.

사람의 居所는 모두 띠지붕이며, 지붕의 이영을 잊지 않고 지붕에 나란히 깔아 긴 나무를 가로놓혀 지붕을 눌러 덮는다. 기와집은 거의 없으며 旌義 · 大靜縣의 官舍도 역시 띠로 덮었다. 村落의 집 構造는 너무 넓어서 고요하고 으스스한데, 집을 한 채 한 채가 서로 이어지지 않았다. ‘品官’이라 불리는 집 외에는 온돌이 없어서 땅을 파서 구덩이를 만든 다음, 돌로 구덩이를 덮고 그 위에 흙으로 온돌같이 바른 뒤 마르게 되면, 그 위에서 지며 거주한다. 내 생각으로는 이곳은 바람과 습기가 많은 탓으로 천식 등 惡疾이 많은 것은 이 때문인 것 같다.¹⁰⁾

이리하여 집을 짓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게 여기면서 다음 民謠도 부른다.

집 신 년아 집 자랑 말라
 대춧낭을 지등을 삼아

注 8) 拙著; 前掲書, 땃물 · 방아노래, 謠 122.

9) 南溟小乘, 婦人無裙 但用麻索縈腰 以數尺布縫 於索之前後 掩其陰而已(金尙憲 ‘南槎錄’)

10) 人居皆茅茨 不編鋪積屋上 而以長木 橫結壓之. 瓦屋絕少 如兩縣官舍 亦茅蓋也. 村屋之制深廣幽深 各棟不相連屬 號品官人外 無溫煖 掘地爲坎 填之以石 其上以土 泥之如突狀 既乾寢處其上 吾意地多風濕 喘欬惡疾之類多 緣此也.(金淨 ‘濟州風土錄’)

굴목낭귀 동서리 결언
짓언 보난 집이로고나.¹¹⁾

語釋: 결 있는 년아 집 자랑 말라
대추나무를 기둥을 삼아
느티나무의 * '동서리' 결어
지어 보니 집이로구나.
* 짧은 나무들을 이어서 만든 서까래

環海天險의 섬인데다 强風·豪雨·旱災가 덮치고, 가장 바탕이 되는 衣食住의 解決이 지극히 어려운 地理的·自然的 環境의 不利는 島民들의 삶을 여유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空間的 惡條件 위에는 被壓과 쓰라린 歷史가 겹쳐 놓렸다. 그것은 ① 地方官吏와 土豪의 收奪과 橫暴, ② 中央政府의 朮算, ③ 苛酷한 貢賦, ④ 加重된 賦役, ⑤ 蒙古의 侵害, ⑥ 倭寇의 侵暴 등으로 要約할 수 있다.

濟州를 처음 찾는 이면 가는 곳마다 돌은 쌓였고 돌맹이는 구르니, 실로 '石多島'임을 異國의으로 實感케 된다. 밭과 밭의 境界 역시 돌담으로 쌓여졌다. 그 由來는 高麗 高宗때 判官金坵의 發案으로 말미암았음을 몇몇 史籍에서 알 수 있다.

濟州에는 亂石이 많으며, 본시 논은 없고, 다만 밭에서는 보리·팥·조가 생산된다. 옛날 경계가 없는 밭에는 强暴한 耕者들이 날로 잠식하였으므로 백성들은 시달려 왔다. 金坵가 判官이 되어 백성들의 苦衷을 듣고 돌을 모아 담을 쌓고 밭의 境界線을 만드니 백성들이 크게 편하여졌다.¹²⁾

이처럼 官吏들의 跋扈도 대단해서 綴文하거나 講을 받을 靑衿이 서울로 가서 배우려고 하면, 그의 無狀한 事端이 漏泄될까 두려워하여 出入을 막으니 官吏가 될 수 없는 일이 많았다는 것이다.¹³⁾

注11) 拙著; 前揭書, 뒷줄·방아노래, 謠 61.

12) 聚石築垣: 東文選 地多亂石 萊無水田 唯麩麥豆粟 生之厥田 古無疆畔 强暴之家 日以譟食 百姓苦之 金坵爲判官 問民疾苦 聚石築垣爲界 民多便之.(李元鎮 '耽羅志' 風俗條)

13) 問有稍知綴文講書者 欲赴京學 則守令輩 慮有漏洩 其無狀之事 禁不得出入 多至終身廢錮.(金尙憲 '南槎錄')

官吏와 土豪들이 얼마나 橫暴했고 그 收奪이 極烈했는가 함은 世宗朝 濟州察訪 金爲民이 朝廷에 올린 官僚積弊 10個項 속에서도 드러나 있다.¹⁴⁾

- ① 土豪가 良民을 強占하여 ‘奉足’을 삼고 제멋대로 奴隸처럼 使役하는 弊.
- ② 6,7月 農繁期에 獐鹿皮를 얻어 進上키 위해 長時日 農民을 田獵의 물잇군으로 酷使하면서 農作에 失時케 하는 弊.
- ③ 民家の 柑橘을 官占하는 弊.
- ④ 帶妻僧徒의 弊.
- ⑤ 教授官·敎諭·檢律 등의 謀利行爲의 弊.
- ⑥ 鄉吏의 職을 典吏가 專任하는 弊.
- ⑦ 不必要한 各種 土官制로 인한 弊.
- ⑧ 良家の 女息을 ‘遊女’라 記帳하고 官婢처럼 使役하는 弊.
- ⑨ 權豪家가 貧農의 田地에 함부로 牛馬를 放牧하는 弊.
- ⑩ 進籍·進馬時에 私物·私馬를 挾帶하는 弊.

이처럼 폐단이 極甚했으므로 濟州에 보내는 官吏는 30個月마다 交替했었다.¹⁵⁾

員의 아덜 員인 체 말라
 신의 아덜 신인 체 말라
 현 자리에 현 베개 베나
 원도 신도 저은 새 옷나.¹⁶⁾

語釋 : 員의 아들 員인 체 말라
 臣의 아들 臣인 체 말라
 현 자리에 현 베개 베나
 員도 臣도 두려운 바 없다.

永世토록 稱頌할 만한 清白吏가 없었던 바도 아니었지만, 그 수효가 零星한 편이요, 官吏 대부분은 庶民들의 地탄을 받을 對象이었다. 虎政은 다만 守令 등 地方官吏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子女들까지도 藉勢와 거드름을 부려 온 터이다. 앞의 民謠는 官吏들 子弟의 자세를 痛駁하면서,

注14) ‘世宗實錄’ 卷 36, 9年 6月條.

15) 請依濟州江界等 官例滿三十個月 適差從之.(‘世宗實錄’ 卷三十, 7年 12月條)

16) 拙著; 前掲書, 맺들·방아노래, 謠 63.

누가 뭐라 해도 欲望에 사로잡힘이 없이 安分知足하면서 儉素하게 살아야 할 處地이니 權勢 있는 者들에게 追從하면서 相關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음을 強調하는 것이다. “너는 너요, 나는 나”라는 平行線의 관계이니 官僚나 官僚의 子弟들이라 해서 何等の 두려움도 없다는 것이다.

濟州島民의 역사는 슬한 貢納에 시달리는 역사였다. 제주도민은 新羅를 받들어 ‘耽羅’라는 國號까지 받았었다는데, 그 후 百濟를 섬겼을 때 耽羅國이 朝貢을 하지 않으므로, 東成王이 征伐軍을 이끌고 武珍州(現 光州)에 이르자, 國主가 이를 듣고 使者를 보내어 사과하자 철군했었다는 기록도 전한다.¹⁷⁾

제주도민의 宗主國에 대한 貢賦는 三國時代와 高麗朝를 거쳐 朝鮮朝에 이를수록 더욱 加重된다. ‘世宗實錄’ 地理志에 실린 濟州牧의 土貢品目만 보더라도 島民들이 貢賦에 얼마나 시달렸었는가를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玳瑁·薰膏·牛毛·榘子·柑子·柚子·乳柑·洞庭橘·金橘·青橘·山橘·金鮑·引鮑·槌鮑·條鮑·烏賊魚·玉頭魚·昆布·山柚子木·二年木·榘子木·良馬·藥材·陳皮·山藥·石薺·草薺·川練子·白芷·八角·零陵香·五倍子·梔子香·附子·木瓜·柴胡·青皮·白扁豆·草烏頭·海東皮·厚朴·烏魚馬·杜沖·蔓荊子·石決明·半夏·黃菊·鹿茸·舶上·茴香·枳殼.

島民들은 貢賦를 위해 宗主가 바뀔 때마다 시달려 왔었으며, 年年歲歲 다달이 부대졌다. 그들의 生活은 衣食住를 간신히 해결하며 겨우 목숨을 부지해 나가는 외에는 貢賦와 賦役을 위해 살았었다 해도 過言이 아니다. 參考로 다달이 貢賦했던 ‘月令’ 一部를 소개해 본다.

月令; 二月 槌鮑二百六十五貼 條鮑二百六十五貼 引鮑九十五束 (十條爲一東) 青橘一千二百五十箇 三月 槌鮑三百四十貼 引鮑八十五束 粉蠶四十束 蠶耳二石五斗 四五月 槌鮑各七百六十貼 引鮑各一百七十束 香蕈各二石一斗五升.¹⁸⁾

注17) 東城王 二十年 庚申 以耽羅不條職貢 親征至武珍州(今光州) 其主聞之 遣使乞罪乃止(李元鎮 ‘耽羅志’ 建置沿革條)

18) 李元鎮; ‘耽羅志’ 貢賦條.

아울러 濟州 風俗에는 男子 15歲 이상은 糶 15말을 歲貢으로 바치고, 衛吏는 말 한 마리를 歲貢하면 副使와 判官이 나누어 갖는다는 弊習마저 있었는데, 高宗朝 副使인 金之錫이 이를 革破했다고 한다.¹⁹⁾

또한 14世紀 中葉이래 朝鮮朝末 사이 濟州島 연안에는 倭寇의 侵犯이 심했었다. 漕運船을 掠奪하는가 하면, 兵船을 燒却했고, 島民을 拉致·殺傷했다. 이들과의 應戰도 힘겨운 일이었는에도 防護所城 構築 등 갖은 賦役이 겹쳤었다. 鎭設과 築城에 動員되었는가 하면, 進上貢物을 서울로 輸送하는 일, 道路와 橋樑 등을 新設, 補修하는 일을 甘受할 수 밖에 없었고 牧場의 管理, 造船과 糞鹽, 烽燧孤 設置 등 엄청난 賦役으로 酷使를 당하기만 했다.

더구나 進貢船의 沈沒로 수많은 濟州 壯丁들이 水中孤魂이 되어버리는 애처로운 일도 非一非再하였다. 맷돌·방아노래 등 勞動謠의 후렴이나, 歌詞 가운데 나타나는 ‘이여도’를 우리는 印象 깊게 기억하고 있다. ‘이여도’는 濟州島 南西海中 中國으로 가는 航路에 있다는 섬으로 濟州島의 進上船이 中國으로 가던 도중, 이 섬 주변의 거센 波浪으로 難破되는 일이 흔했었다고 전해진다. 進上物을 서울로 輸送하는 데는 貢船의 難破에 따른 人命 被害가 尤甚했던 듯, 여러 文獻에 가끔 그 記錄이 드러난다. 淸陰의 ‘南槎錄’에는 濟州人 孫孝枝의 말이라 해서, 그 難破의 慘狀을 똑똑하게 알린 바 있었다.

곧, 濟州는 멀리 大海 가운데 있으며, 그 波濤는 다른 바다 가운데도 몹시 사납고 거칠어서 貢船이나 商船의 선단들이 서로 잘 연락이 된다 해도, 漂流하고 沈沒해서 10인이면 5,6人 살아 남는다는 것이다. 제주 사람은 배의 漂流로 죽지 않으면, 배가 沈沒하여 죽으매, 고을 안에 남자 무덤은 거의 없고 閭閻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3 배나 많다. 父母가 되어 女

注19) 金之錫：高宗朝 爲副使 州俗 男年十五以上 歲貢豆一斛 衛吏 歲貢馬一匹 副使判官 分受之。之錫到州 日即調之 政清如水 民懷其德 州人曰 前有世封 後有之錫。(李元鎮‘耽羅志’名宦條)

兒를 낳으면 이 애는 내게 孝道를 잘하리라 하며, 生男할 때면 누구나 다 이는 내 애가 아니라 고래나 악어의 먹이라고 말한다 했다.²⁰⁾

이러므로 十男을 낳아도 入籍者는 한둘이었으며, 女兒로 假入籍하는 수가 흔했다. 島民들은 이처럼 삶이 쓰라리며, 그 괴로움이 男丁의 勞役보다 더하기 때문에 全島에 걸친 백성들이 韓本土로 나가 돌아오지 않는 者가 썩 많았는데, 혹은 바다를 건너 도피한 사람들은 各處에 흩어져서 그 數를 알 길 없었는가 하면, 많이 모인 곳이면 村落을 이뤄 아들 낳고 손자까지 자라도록 세월이 흐르매, 刷還之法이 비록 엄했어도 執行하는 官員이 任務를 다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刷還한다 하더라도 흉년이 되면 다시 出陸하니 可歎할 일이기도 했다.²¹⁾

韓本土 各地로 流亡하는 者가 續出하자 島內에서 倭寇 防衛와 貢物 獻納 등을 감당할 길이 없어졌다. 드디어 政府에서는 17世紀초에서 19世紀초에 이르는 長長 2百年間 出陸禁止令으로써 島民들을 묶어 놓기까지 했었다. 이처럼 生男하여도 女子로 假入籍한다거나, 韓本土로 流離逃亡하는 者가 흔해진 理由의 또 하나는 13世紀 後半에서 14世紀 前半에 이르는 約 百年間 蒙古의 侵奪을 들 수 있겠다. 그 侵奪의 樣相을 詳論할 겨를이 없거니와, 蒙古를 이은 明에서마저 恭愍王 23年 高麗朝에 濟州馬 2千匹을 貢納하길 强要한 일마저 있었다. 실제로 蒙古에 放牧한 말입을 口實로 3百匹만 獻馬했었다지만, 그들 橫暴의 深度를 어림하는데 端的인 例證이라 할 것이다. 이제까지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이 現實主義的 傾向이 짙다고 한다면, 그것은 時空的 惡條件이 島民을 二重三重으로 짓눌러 왔다는 데 緣由하는 것이란 전제 아래, 그 不利한 與件을 살펴 봤다.

注 20) 溟海錄 濟州人 孫孝枝曰 我州遼在大海中 波濤視諸海 尤爲凶暴 貢船商舶 絡繹不絕. 漂流沈沒 十居五六 州人不死於前 則必死於後. 故境中男墳 最少. 閭閻之間 女多三倍於男 爲父母者 生女則必曰 最善孝我者 生男則皆曰 此物非我兒 乃鱸鱖之食也云.(金尙憲 '南槎錄')

21) 本道之民 生理艱苦 重困於男丁之役. 故三邑之人 出陸不還者 頗多. 或有過海 而逃者 散落諸處 不知其數. 或群聚處 則成一村落 生子長孫 歲月既久 刷還之法 雖嚴 刷之官 不能奉行. 今因李慶德狀啓 先十年內逃亡者 而歲凶 又退刷期可歎.(李元鎮 '耽羅志' 奴婢條)

이처럼 地理的·自然的으로 不利한 與件을 지닌 위에도 歷史的·社會的인 暗雲이 늘 가집이 없이 뒤덮이게 되자 島民들의 意識은 現實主義的인 色彩를 짙게 풍기게 되었으리라 본다. 그리고 이 推定에 근거하여 濟州島 民謠에도 現實主義的 傾向이 유달리 드러나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것이다.

2. 謠種으로 본 濟州島 民謠의 現實主義的 性格

筆者는 濟州島 民謠의 謠種上 特異性을 다음 몇 가지로 要約해 본다.

- ① 勞動謠가 壓倒的으로 많다.
- ② 女謠가 大部分이다.
- ③ 本土民謠에 비해 類似謠가 드물다.
- ④ 情戀謠·舞踊謠·動植物謠 및 타령 등 밝고 가벼운 노래들이 비교적 드물다.

여기 勞動謠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만을 두고 論議를 具體化시켜 본다. 蒐集의 角度나 主眼에 따라 篇數의 差異야 얼마든지 드러날 수 있겠지만, 濟州島 民謠의 경우 勞動謠가 大宗을 이루고 있음도 물론이거니와, 그 量이 相當數에 이르고 있음 또한 강조할 만한 일이다. 예를 들어 拙著 '濟州島 民謠研究, 上'에 수록된 民謠를 對象으로 한다면 總 1,403篇 가운데 勞動謠는 1,142篇을 헤아리니, 비율로 따지자면 무려 81.5%에 이른다. 濟州島 民謠의 바탕이 勞動謠이며 勞動謠에 置重하여 蒐集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民謠 總數 5分の 4가 勞動謠라는 사실은 분명 濟州島 民謠의 特異한 性格이라 할 것이다. 이를 一覽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濟州島 民謠에 있어서 勞動謠의 絕對的 優位性은 韓本土의 民謠와 對比하여 볼 때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任東權교수의 '韓國 民謠集'(東國文化社刊, 1961)에 收錄된 민요 가운데 古代民謠를 除外하면 民謠篇이 1,282篇, 童謠篇이 862篇으로서 總 2,144篇이 된다. 이 2,144篇의 謠種別 篇數는 다음과 같다.

이 統計에 따르면 勞動謠는 불과 19.2%다. 濟州島 民謠에서 81.5%가

東岳語文論集 第十一輯
濟州島 民謠의 謠別 篇數 一覽

區 分	謠 種	篇 數	比 率
勞 動 謠	멧돌·방아노래	815篇	81.5%
	海女노래	199	
	김매는노래	44	
	타작노래	28	
	其他勞動謠	56	
	小 計	1,142	
打 令 類	옛 타 령	27	7.7
	雜 謠	41	
	輓 歌	41	
	小 計	109	
童 謠 類	童 謠	121	10.8
	자 강 가	25	
	語 戲 謠	6	
	小 計	152	
計		1,403	100

資料：拙著 '濟州島民謠研究 上'에 依據

勞動謠라는 사실과 비교하면 엄청난 差異다. 물론 '韓國民謠集'에서의 分類基準과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의 分類基準과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도 사실이다. 濟州島 民謠의 경우는 그 歌唱起緣이 作業과 관련될 경우면 그 歌唱內容이 어떤 것이든 모두 勞動謠로 처리했음에 반하여 '韓國民謠集'의 경우는 설령 作業하면서 불리어지는 노래라 하더라도 그 歌詞 內容에 따라서는 勞動謠 밖으로 다루어 다른 謠種으로 獨立시킨 경우가 있는 듯하다. 말하자면 어디의 民謠든 勞動謠의 歌詞 內容을 보면 ① 作業實態를 노래하는 內容과 ② 作業實態外로 傳承者들의 生活全般에 걸친 實情과 苦惱, 意欲과 希願을 노래하는 內容으로 大別할 수 있다. 後者의 경우, '韓國民謠集'에서는 그 主題에 따라서는 勞動謠 밖으로 다루어 獨立시킨 例가 있는 듯하지만 '濟州島民謠研究, 上'에서는 作業하면서

韓國民謠의 區別 篇數 一覽

區 分	謠 種	篇 數	比 率
民 謠 篇	勞 動 謠	412篇	19.2%
	信 仰 性 謠	60	2.8
	內 房 謠	114	5.3
	情 戀 謠	150	7.0
	輓 歌	5	0.2
	打 令	503	23.5
	說 話 謠	38	1.8
	小 計	1,282	59.8
童 謠 篇	動 物 謠	204	9.5
	植 物 謠	50	2.3
	戀 母 謠	29	1.4
	愛撫와 자장謠	43	2.1
	情 緒 謠	84	3.9
	自 然 謠	20	0.9
	諷 笑 謠	175	8.2
	語 戲 謠	66	3.0
	數 謠	36	1.7
	遊 戲 謠	126	5.9
	其 他 謠	29	1.3
小 計	862	40.2	
總 計		2,144	100

資料：任東權 ‘韓國民謠集’에 依據.

르는 民謠일 경우면, 그 歌詞 內容이 어떤 것이든 모두 勞動謠 속에 포함 시켰다.²²⁾ 또한 이 統計에 있어 엄청난 差異가 드러나는데는 그 수집·정리 태도에도 있을 것이다. 筆者는 濟州島 固有의 民謠에만 置重했고, 流行歌謠의 色彩가 짙은 것을 되도록 排除했을 뿐더러, 특히 濟州島 民謠의

注 22) 例컨대 ‘韓國民謠集’ 가운데 ‘信仰性謠’·‘內房謠’·‘戀情謠’와 童謠篇에서의 ‘戀母謠’·‘情戀謠’ 등은 勞動謠 밖으로 돌아냈지만, 그 가운데는 그 歌唱 起緣이 勞動일 경우도 꽤 있지 않을가 한다. 筆者는 그 歌詞 內容이 어떤 것이든, 海女作業과 더불어 불리어지는 노래라면 일체 ‘海女노래’에 포함시켰고, 김을 매면서 부르는 노래라면 일체 ‘김매는 노래’에 포함시켰다.

本領인 勞動謠에 力點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童謠에는 공을 들이지 않았다.

濟州島 民謠의 대부분이 勞動謠인 까닭은 어디 있을까. 첫째, 前述한 바 時空的 惡條件으로 말미암아 일해야 살지, 일 않다가는 죽는다는 哲理가 道民의 信念으로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본디 주냐	어둡는 집의
오늘이영	밝은 때 하랴
어둡거든	밤이영 말라
밤도 아니	어두워터라. ²³⁾

語釋: 본디 저녁	어둡는 집에
오늘이라고	밝은 때 하랴
어둡거든	밤이라 말라
밤도 아니	아두워터라.

勞動이 生活의 전부일 바에야 밤도 밤이 아니요, 밤도 어디 어둡겠는가 고 逆說하는 島民들이다. 그러니 島民들의 自強·勤勉性에 대해서야 어찌 贅言을 덧붙이랴. 둘째는 사시사철 일해야 할 제주도 農漁民들의 勞動의 종류가 相當量에 달한다는 점이다. 그 勞動의 종류를 이제 ——이 枚舉할 필요도 없이, 대체적인 濟州島 勞動謠의 謠種을一瞥하더라도 이내 推察할 수 있다.²⁴⁾

(1) 農業謠

발 밟는 노래	(발 불리는 소리)
김 매는 노래	(김질 매는 소리·사디·사떼)
흙덩이 바수는 노래	(병에 두두리는 소리·곰베질 소리)
따비질 노래	(따비질 소리)
보리 훑는 노래	(보리 훑는 소리)

(2) 製粉謠

注 23) 拙著; 前掲書, 맷돌·방아노래, 謠 86.

24) 拙稿; '濟州島의 勞動謠', ('韓國文化人類學, 8 輯, 韓國文化人類學會, 1976)

이 좁다란 地域에서 20數種의 勞動謠가 現傳되는 곳도 드물 줄 안다.

그 셋째는 濟州島에서는 멧돌·방아작업이 모든 家庭마다 必須的인 重要作業이었으므로 奇拔한 質의 멧돌·방아 노래가 다량 傳承된다는 점이다. 멧돌·방아 노래는 濟州島 民謠의 白眉格일 뿐더러 濟州島 노동요의 무려 70% 내외에 이른다. 濟州島 民謠의 質的·量的 秀逸성은 바로 이 멧돌·방아노래가 傳承되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리와 조는 濟州島民의 主穀이다. 濟州島의 地表는 물이 고이질 않고 논이 드물며, 밭과 논외의 비율은 약 50대 1이기 때문에, 자연히 쌀 生産보다 보리와 조가 主穀일 수밖에 없다. 보리는 연자매에서 一次 짙은 다음, 멧돌에서 쪼개어 먹는 習俗이 傳來되어 왔다. 물론 갖가지 穀物을 잘아먹기도 하지만 멧돌질의 主要機能은 보리쌀을 쪼개는 일이었으니 그게 日用糧食이고 보면 곡식을 쫄고 뺀 방아질과 더불어 날마다 되풀이되는 家內作業이었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더구나, 그 멧돌질은 한두 女人에 따라 安定된 장소에서 長時間 이어진다는 점이 이 노래를 秀逸하게 했으리라 본다. 이런 理由들로 해서 濟州島에서는 勞動謠가 主軸을 이루는 것이다. 넷째는 世界的 存在인 海女들이 있을 뿐더러 海女들에 의한 ‘海女 노래’는 濟州島에서만이 本格的으로 傳承된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地球上에 海女가 있는 곳은 韓國과 日本인데 韓國 海女の 거의가 濟州島 海女인데다, 日本의 海女는 作業樣相이 달라 원래부터 노래가 별로 傳承되지 않았던 듯 稀貴하게 蒐集 報告될 뿐이다.²⁵⁾

허기야 어디서나 勞動謠가 民謠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높은 편이다. 高晶玉씨도 韓國民謠에서는 勞動謠가 가장 많음을 指摘하고 있다.²⁶⁾ 그는 韓國民謠의 特質 11個項目을 드는 가운데, 그 謠種의 特徵으로서 婦謠의

注 25) 日本의 많은 民謠集에 보면, 가끔 ‘海女노래’ 비슷한 ‘海苔採節’·‘鮑取唄’·‘海女唄’가 보이기는 하나, 제주도의 ‘해녀노래’처럼 作業次 배 타 나갈 때, 櫓 지으며 부르는 경우는 없는 듯하니, 本格的인 ‘海女노래’는 이 地球上에서 제주도에서만 傳承된다는 말이 된다.

26) 高晶玉; ‘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 p. 505.

優勢와, 舞蹈謠의 稀貴性을 들었다. 勞動謠를 비롯하여 遊戲·語戲的 民謠가 상당히 풍부한데, 舞蹈謠(dance songs)는 거의 缺如되어 있다 해도 過言이 아니라는 사실은 藝術 全體가 生活上 필요에서 벗어나서 純全한 享樂을 위해 存在할 餘력이 없었던 韓國庶民生活의 여실한 한 反映이라 할 것이라고 推察하고 있다. 그것은 舞蹈謠 뿐이 아니다. 유우롭에서 보이는 戰爭謠(war songs)·宗教謠(religious songs)가 아예 없거나 稀少하다. 이 점은 日本의 民謠에서도 역시 한가지다.²⁷⁾

民謠를 論議함에 있어 勞動謠에 核心을 두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인 줄 알거니와, 그 特異한 時空의 與件으로 말미암아 濟州島에선 農漁業등의 勞動量이 그만큼 많고, 島民들이 農漁業에 全生命을 바치다시피 해야 비로소 사는 自主·勤勉性에서 緣由되었을 줄 안다.

생띠이브(P. Saintyves, 1870~1935)는 人間의 欲望을 物質的 欲望, 精神的 欲望, 聯合的 欲望으로 三分하고, 이는 각각 物質生活·精神生活·社會生活를 낳았다 했거니와²⁸⁾, 여기 物質的 欲望을 充足시키기 위하는 것이 바로 勞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勞動에 따른 民謠는 노래하기 위한 노래일 수 없다고 볼 때, 濟州島 民謠에 勞動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現實主義的 傾向이 짙다는 말이 된다'

3. 內容으로 본 濟州島 民謠의 現實主義的 性格

제주도 민요의 內容의 特色을 필자는 ㉠ 時空의 惡條件으로 말미암아 淒切과 痛憤이 넘치는가 하면, ㉡ 이로 말미암아 鐵石 같은 自主勤勉性과 不敗의 信念을 낳았으며, ㉢ 주어진 實情을 透徹하게 打開해 나가는 現實主義的 生活觀이 굳어진 것으로 縮約해 보아 왔다.

A 1. 실론 정배 걸어난 짚은
 질이조차 자물어진다.²⁹⁾

注 27) 柳田國男; '民謠覺書'(創元社, 1940) pp. 11~26.

28) Saintyves; 'Manual de Folklore' (Paris, 1936) pp. 85~91.

29) 拙著; 前掲書, 맺돌·방아노래, 謠 147.

註釋: 설은 貞女 걸었던 길은
길조차 가들어진다.

A 2. 나 전생이 굶어나 지난
나막신 신어 돌다리 발 듯
왓각달각 소리만 난다.³⁰⁾

註釋: 내 前生이 굶어나 지니
나막신 신어 돌다리 타 듯
왓각달각 소리만 난다.

‘環海天險’의 地理的 與件 위에 虐政·侵奪·進上賦役과 阿附 및 抗拒, 그리고 悲嘆 등으로 가득찬 역사가 흘러갔으니 설은 貞女 걸었던 길은 具體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A1), 나막신 신어 돌다리 타 듯 왓각달각 요란한 한 평생을 보내는 것은 내 前生 八字라 遡源하여 諦念하기도 한다(A2). 遊蕩과 文學이 日本에서처럼 섞 混和된 나라도 드물다지만 아무리 괴롭게 일하면서도 戀歌를 부르지 못하는 일은 없었다. 그것은 ‘모내기 노래’(移秧歌)를 예들어 봐도 쉽게 짐작된다.³¹⁾

悲愁·悽切·痛憤은 일단의 敗北다. 그러나 默默하게 忍苦하는 姿勢로 까무러쳐 버리지는 않는다. 悲嘆의 深淵까지 거치고 나서는 이를 짓눌러 切齒하며 生活第一線에서 奮闘한다. 이 鐵石 같은 意志와 氣魄은 곧 어떤 狀況, 어느 무엇에도 이기고야 만다는 不敗의 信念이다.

오름에 들광 지세어명은
둥글어 덩기당도 살을매 난다
늪의 침광 소낭과 빈름은

注 30) 同上, 謠 153.

31) 飛驒の山國の或社の初春の田祭に

君が田とねが田の並ぶうれしきよ

我田にが、れ君が田の水

こいふのが残って居る。是も以前には 本當の田植の日に苗を探る早乙女たちがそつと歌って居た民謠の記憶であつた。どんなにきつく働いて居ながらも 戀の歌はうたへぬことは無かつた。ただ疲れてしまつて其歌の心持が 互に味はへなくなるのが悪かつただけである。(柳田國男, 民謠覺書, 創元社, 1940, p. 71)

소린 나도 살울메 옷다
 버럭버럭 살마곳은
 할틀 피엥 옷어나진다³²⁾

語釋 : *(오름)에 돌과 ***(지세어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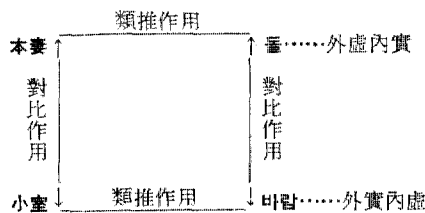
굴러 다니다가도 살 도리 난다
 남의 침과 소나무바람은
 소린 나도 살 도리 없다
 먼뚫먼뚫 半夏꽃은
 하루 피어 없어 진다

*岳·嶽. 곧 제주도의 경우는 漢羅山 돌메 및 鳥一圓에 걸쳐 불쑥불쑥 솟은 甍生火山(側火山)을 일컫는 말.

**貞節을 잘 지키면서 집안 일을 확실히 다스리는 아내.

둘의 生理는 곧 不敗의 意志다.

本妻는 마치 봉우리의 돌처럼 쓸쓸히 굴러 다니다가도 세월이 가면 살 도리가 생기는데, 小室은 소나무에 부딪쳐 요란하기만 한 바람처럼 겉으로 는 요란스러우면서도 살 도리가 없다는 想定. 萬難과 逆境에 부딪치면서도 바장이거나 앙살부림이 없이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는 賢婦는 마치 어느 봉우리 비탈에 자리하여 年年歲歲 같은 風寒暑濕에도 何等의 不平없이 勘耐하는 돌처럼 忍苦를 거치면 언젠가는 소용될 날이 돌아오겠지만, 야단스러울 만큼 華奢한 남의 小室이란 虛虛롭기만 한 것이어서, 마치 無形이면서도 요란스럽기만 한 바람처럼, 살 도리라곤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 小室과 바람은 外實內虛하다 한다면 本妻와 둘은 外虛內實하다 할 것이다.



더구나 小室과 바람의 外實內虛性은 하루쯤 화려하게 피었다가 이내 시

注 32) 拙著; 前掲書, 맺줄·망아노래, 謠 557.

들어 버리는 半夏꽃이 곁들어 새삼 강조됨으로써 한층 그 歌意를 복돋고 있다. ‘石多의 섬’이라 濟州島 民謠에서는 역시 돌을 題材로 한 民謠들이 제법 재미 있게 쏟아져 나온다. 民謠만이 아니라 童謠에까지도 뻗쳐 나가니 이를 分析함도 興味 짙은 일이다. 결국, ‘石多’는 濟州島民의 實情이요, 그들은 好惡間 돌을 天惠的 資產으로 收領했다. 따다 버리지 않고 고차누룩한 채, 쉬 토라짐이 없이 주어진 實情은 주어진 實情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여 말이 없는 돌의 美學을, 抗辯을 일삼는 일 없이 바보처럼 제 자리를 지키면서도 自虐하거나 까무러칠 줄 모르는 돌의 哲理, 곧 不敗의 意志를 확인하면서 제주도민들은 살아간다고 본다.³³⁾

스바르텐그렌(T. Hilding Svartengren)의 ‘Intensifying Similes in English’에 따르면, 돌(stone)은 장님(blind)·병어리(deaf)·堅固(firm)·沈默(silent)·境界(pale)로 直喩되며, 바람(wind)은 虛僞(false)·自由(free)·銳敏(sharp)에 直喩된다 했다.³⁴⁾ 本妻는 실로 장님처럼, 병어리처럼, 沈默하여 살아 가지만, “말 몰라서 3年, 귀먹어서 3年, 눈 어두어서 3年”³⁵⁾ 平生을 시집살이 살 듯 살아가지만, 그러나 堅固한 것일 수 있음에 比하여 小室은 自由롭고 銳敏하게 번득이지만 內虛하기만 하여 虛僞에 차 있는 것이다.

多孔質의 玄武岩이라 뼈끔뼈끔 구멍은 뚫었으나 그래도 어느 ‘오름’ 비탈에 자리하여 겁이 없는 한 돌맹이의 安定感——이는 비단 本妻의 希願일 뿐더러, 참 하잘 것 없이 조출하고 자그맣지마는 이것은 그대로 제주도민의 變幻을 두려워하는 귀여운 꿈이요, 理想인 것이다, 도민들이 外實 內虛한 바람의 生理를 取材했다기보다 外虛內實의 敗北하지 않는 돌의 哲理를 擇한다는 것은 現實主義的 發想인 것이다. 不敗의 意志는 곧 實利的 思考를 낳는다.

늙은 부모 모신 이럴아

注 33) 抽稿; ‘濟州島民謠와 石多’(‘韓國民俗學’ 通卷 3, 民俗學會, 1970) pp. 23~37.

34) T. Hilding Svartengren; *Intensifying Similes in English* (Gleerupska Universitetsbokhandeln, Lnd, 1918)

35) 抽著; 前揭書, 옛돌·방아노래, 謠 493, 495.

산 매 공경 향서너서라
 머리 매장 밭 매장향영
 혼백상지 양 옆의 놓양
 삼헌관에 식집스 세왕
 절 삼배에 술 석잔 드리난
 어느 잔이 배 골랍서니.³⁶⁾

語釋 : 늙은 父母 모신 이들아
 산 매 恭敬 하자구나
 머리 埋葬 밭 埋葬하여
 魂帛箱子 양 옆에 놓아
 三獻官에 세 執事 세워
 절 三拜에 술 석잔 드리니
 어느 잔이 배 골고 있던.

父母를 여의어 본 이면 누구나마 共感하면서 肅然해지는 노래다. 職業과 身分을 가릴 것 없이 발가벗은 아들이요, 딸로 돌아올 때, 父母를 追慕하면서 後悔 없을 자식은 드물겠기 때문이다. 人類가 이 地球上에 살아온 이래 無常을 노래한 詩와 小說이 無數하겠지만, 이처럼도 切切하게 死後祭需의 感應與否를 寫實的·直說的으로 노래해 낸 作品의 類例가 몇몇이나 될까. 極에 達한 悔罪를 實吐, 警民하면서도 부딪친 現實을 直視하며, 科學하는 叢智가 閃光처럼 반짝인다. 이 民謠의 核心은 ‘그러니까 살아계신 때 공경 하자구나’에 要約되지만, 그 妙味는 ‘三獻官’·‘세 執事’·‘절 三拜’·‘술 석잔’ 등 ‘三’字의 잇따른 反復에도 있다. 말하자면 歌意에 드러난 具體的 功利性은 具體的 表現技巧에 따라 더욱 深化되어 나간 것이다. 反復되는 數字 ‘三’의 具體的 配列이 어찌면 虛妄하지만 한 煩禮를 嘲笑, 恨嘆하면서 지난날의 自身의 不孝를 막심하게 後悔·哀痛케 한다. 現在 父母를 모신 本들을 敎訓하는데 漸層的 強勢를 드러낸다. 그것은 민요 자체가 지닌 바 疊句의 反復이 그 謠意에 效果를 내게 하는 好例다. 反復이나 疊句 등의 技巧은 初期詩 特有的 실로 不可思議한 效率의 特

注 36) 拙著; 前掲書, 몇 돌·방아노래, 謠 240.

徵이다.³⁷⁾

허버트·리이드(Herbert Read)는 民謠의 特質을 설명하기 위하여 數世紀 동안 口傳되어 오는 民謠 ‘린컨의 휴우’(Hugh of Lincoln)를 예들고 난 다음, 그 첫째 特質은 ‘이야기의 鮮명한 直接性’(a clear directness of narrative)이며, 그 둘째는 ‘어떤 激烈한 寫實性’(a certain fierce realism)이라 지적한 바 있다.

곧 이 民謠에서 보면 “스물 넷의 씩씩한 少年들이(Four & Twenty bonny boys)／콩차기놀이를 하고 있었네(Were playing at the ba)”라든가, “그녀는 킁킁한 入口로 그를 誘導해 놓았네(She’s led him in through as dark door,)／아홉의 門을 지치고서(And sal has she thro nine;)”라든가, 혹은 “She’s thrown him in our Lady’s draw-well,(그녀는 그를 聖母의 우물에 던져 놓았네,)／Wa fifty fathomdeep:(그 우물은 쉰 길이나 되는 깊이였네)”등에서 각각 ‘스물넷의 소년’ ‘아홉의 門’·‘쉰 길’처럼 數字를 動員한면서까지 極端的인 明確性을 드러내고 있다. H. 리이드는 先人들의 專門語를 계승하여 우리들이 리얼리즘이라 부르는 것은 明確性에 不過하다고 지적하면서 이야기의(곧 줄거리의)直接性에, 具象化의(곧, 細部의) 明確性이 對應한다 했다. 明確性은 民謠에 있어서 가장 현저한 特質이라 지적했다.³⁸⁾

歌唱者들의 意識이 實利의 일 뿐더러 그 表現 技倆에서 역시 리얼리스트틱한 멧돌·방아노래 또 그 1首를 소개한다.

공을 밤의	밀 닳말 ㄴ난
궤역삼메가	다섯 개난
씨아바님	둘 드리꼭
씨어머님	둘 드리꼭
흐나일랑	둘노 누낭

注 37) There is, for instance, the device of repetition or refrain, which is a very curious and effective feature of early poetry. (Herbert Read; op. cit., p. 21)

38) What, inheriting the jargon of our fathers, we call realism is no more than definiteness. To the directness of the narrative (that is, of the action) corresponds the definiteness of the visualisation (that is, of the details). Definiteness is a most striking characteristic of the ballads. (Herbert Read; op. cit., p. 19.)

일이 혼잡 내가 혼잡.³⁹⁾

語釋 : 하룻밤에 밀 닷말 가니

* <베역삼메>가 다섯개니

시아버님 들 드리고

시아머님 들 드리고

일이 한 쪽 내가 한 쪽.

* 밀기울 따위로 주먹 같이 둥글게 만든 떡 <베기떡>

멧돌·방아노래 속에 포괄되어 있는 ‘시집살이노래’다. 韓國民謠에서는 婦謠의 量的·質的 優勢가 첫째 特質로 지적되기도 하는데, 婦謠中에서도 ‘시집살이노래’의 苦惱를 비롯하여 ‘母女愛戀歌’의 깊은 情, ‘童女謠’의 純淨味는 단연 韓國閨房文學의 精華라 할 것이다.⁴⁰⁾ 다음에 제주도 민요 ‘시집살이노래’의 內容을 提示하겠거니와 韓國民謠 全般의 分析과 한가지다.

제주도 민요 ‘시집살이노래’ 內容分析

內 容	篇 數	比 率
1. 시집살이의 苦衷	39	41.9%
2. 媳族의 虐待	9	9.7%
3. 媳家行	7	7.5%
4. 媳族誹謗	12	12.9%
5. 媳母誹謗	12	12.9%
6. 媳妹誹謗	6	6.5%
7. 媳宅咀咒	5	5.4%
8. 媳家忠實	3	3.2%
計	93	100%

資料 ; 拙著 ; ‘濟州島民謠研究, 上’에 依據.

시집살이의 苦衷이 ‘시집살이노래’全般의 40% 이상으로써 상당한 比率인 데다, 媳族의 虐待·媳家行·媳族誹謗·媳母誹謗·媳妹誹謗·媳宅咀咒 등 온통 否定的 側面이다. 否定的 側面이라도 避할 수 없는 實情이다. 實

注 39) 拙著 ; 前掲書, 멧돌·방아노래, 謠 458.

40) 高晶玉 ; ‘朝鮮民謠研究’(首善社, 1949) pp. 488~489.

情을 實情대로 노래했다는 것은 역시 民謠가 원래부터 自然스럽고, 單純하고, 客觀的이며 實生活와 密着되어 있는 것이어서 主觀的이며, 臆想的인 이요 感傷的인 것은 群集所産의 詩에서는 있을 수 없는 特徵이기 때문이다.⁴¹⁾

위에 든 例謠는 媿家忠實에 끼어드는, ‘시집살이노래’로서는 異例의인 內容이다. 한룻밤에 밀 닷말을 갈아 준 품삯으로 ‘쾌역삼매’ 떡 5개를 얻는다. 媿父母에게 각각 들씩 드리고 나니 남는 하나는 임과 내가 半分하여 먹는다는 씩 예쁘장한 內容이다. 멧돌질을 한 품삯으로 떡 5개를 받는다는 것도 具體的이거니와, 5개의 떡을 2개, 2개, 0.5개, 0.5개로 數値를 外顯시켰음은 明確性이요, 이 明確性은 民謠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特質이라 할 것이다.⁴²⁾

석섬 쓸은	서말에 능경
서말 쓸은	석퇴에 능경
석퇴 쓸은	서흙에 능경
차귀 당산	당산매 지영
느네 상전	눈에나 들라 ⁴³⁾

語釋 : 석섬 쓸은 서말에 능거
 서말 쓸은 석퇴에 능거
 석퇴 쓸은 서흙에 능거
 *遮歸堂山 **<당산매> 지어
 너의 上典 눈에나 들어라

*‘遮歸’는 輪京面 高山里이며, ‘遮歸堂山’이란 高山岳(높이 140m)의 別稱

**중요한 곳을 할 때, 메가 꼭 한 그릇이 의도록 늦그릇에 몰과 쌀을 알맞게 넣은 다음, 이를 줄안에 담고요 정성껏 지은 때, <서천노기 당산매>·<서천강 노기매>·<노기매>라고도 함.

역시 數値를 動員하면서 明確性과 現實主義的 意識이 확실히 드러난 例謠다. 석섬>서말, 서말>석퇴, 석퇴>서흙을 연거푸 나타냄으로써 歌意는 漸層的으로 效果를 얻어 強調되는데, 더구나 ‘서’가 되풀이되는 頭音

注 41) Herbert Read; op. cit., p. 27.

42) Herbert Read; op. cit., p. 19. (‘註 38’ 參照)

43) 拙著; 前掲書, 멧돌·방아노래, 齣 30.

과 ‘살은’과 ‘능경’이 지니는 末音作用으로 말미암아 노래는 한결 秀逸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精誠을 다해 ‘당산메’를 지으라는 말인데, 그 정성을 다하라는 뜻이 이처럼 數値의 反復, 具象化로 해서 더욱 強調되며 明確해지는 것이다.

時空的 惡條件→悲痛→自主勤勉性和 不敗의 意志→現實主義의 生活觀으로 歸結되는 島民의 魂과 같은 意識은 民謠의 가사 내용과 표현 기교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다.

4. 濟州島 童謠에 드러난 現實主義의 生活觀

濟州島 民謠 속에 드러나는 現實主義의 生活觀은 또한 濟州島 童謠에서도 나타나는 듯 싶다.

- A. 밥주리아 밥주리아
 청청 앓아난 방석에 앓이라
 하늘 옥황에 올라강은에
 곧밥 누벙이 굶어당 주마.⁴⁴⁾

<잠자리를 잡으며>

語釋 : 잠자리아 잠자리아
 청청 앓았던 방석에 앓아라
 하늘 옥황에 올라가서는
 흰밥 누룽지 굶어다 주마.

- B. 불한피야 불한피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개똥범벅 하여 주마
 쇠똥범벅 하여 주마.⁴⁵⁾

<개똥벌레를 잡으며>

語釋 : 개똥벌레야 개똥벌레야
 내려오라 내려오라
 개똥범벅 하여 주마
 쇠똥범벅 하여 주마.

注 44) 拙著; 前掲書, 집승과 벌레노래, 謠 1266.

45) 同上, 謠 1271.

(30)

東岳語文論集 第十一輯

- C. 춤추라 춤추라
 너네 할으방 굿하는 데
 돌아다 주키여
 춤추라 춤추라
 너네 할망 굿하는 데
 돌아다 주키여⁴⁶⁾

<방아깨비를 붙잡고 춤추길 바라며>

語釋 : 춤춰라 춤춰라
 너의 할아버지 굿하는 데
 때려다 주겠다
 춤춰라 춤춰라
 너의 할머니 굿하는 데
 때려다 주겠다

- D. 춤추라 담배 주마
 춤추라 담배 주마⁴⁷⁾

<방아깨비를 붙잡고 춤추길 바라며>

語釋 : 춤춰라 담배 주마
 춤춰라 담배 주마

- E. 밥하라 죽하라
 밥하라 죽하라
 네미 네비 죽은 데
 율미 쑤영 가계.⁴⁸⁾

<제를 붙잡고 거품을 내게 하며>

語釋 : 밥하라 죽하라
 밥하라 죽하라
 네 어머니 네 아버지 죽은 데
 元味 쑤어 가자

- F. 주월 제일 느려오라

注 46) 同上, 謠 1288.

47) 同上, 謠 1289.

48) 同上, 謠 1292.

개똥 범벅 할영 주마
 쇠똥 범벅 할영 주마
 북북 굶어먹영
 좌좌 올라가라.⁴⁹⁾

<등에와 매미가 나무에서 내려오기를 바라며>

語釋 : *‘주월’매미 내려오라
 개똥 범벅 하여 주마
 쇠똥 범벅 하여 주마
 박박 굶어먹어
 죽죽 올라가라.

*야소의 피를 빨아 먹고 사는 조그만 등애의 한 가지.

애들이 배를 지어 잠자리를 잡을 때, 앉았던 자리에 앉아 주기를 바라는데도, 그냥 앉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 玉皇에 가서 흰밥 누룽지를 굶어다 줄 테니 앉으라는 것이요(A), 한가로운 여름날 밤, 개똥벌레 잡는 애들도 하늘 날으는 개똥벌레 보고 그냥 내려오라는 게 아니라, 쇠똥범벅·개똥범벅 해 줄 테니 내려오라는 것이다(B). 방아깨비를 붙잡고 깡총깡총 춤추길 바라면서도 그냥 춤추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방아깨비 보고 네 祖父母가 굿하는 데 데려다 줄 테니 춤추라 한다(C). 아니면, 담배를 줄 테이니 춤추라 한다(D). 게를 붙잡고 거품을 내게 하면서도 네 父母 作故한 데 元味 쭈어 가야 하겠기, 거품을 내라는 것이다(E). 또한 개똥범벅·쇠똥범벅 해 줄테니 등에나 매미 보고 내려오라 타이른다(F).

그냥 무작정하고 作爲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卼박卼박 有償的인 行爲要求는 그 發想 自體가 現實主義的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濟州島 童謠라 해서 모두가 有償性의 內容이 아니며, 本土의 童謠라 해서 有償的 內容이 全無하다는 것은 아니다. “어찌어찌해 줄 테니 어찌 어찌하라”는 實利的 內容의 童謠가 濟州島의 경우, 많이 傳承된다는 점만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면, 이상의 童謠가 불리어지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動機에서 傳承되는 本土의 童謠를 몇 篇 간추려 이와 對比해 보기로 하자.

注 49) 同上, 謠 1302.

(32)

東岳語文論集 第十一輯

- a. 안질 땀이 공공
- 선질 땀이 공공
- 먼데 먼데 가면은
- 똥물 먹고 죽는다.⁵⁰⁾

<잠자리를 좇으며>

- b. 갯피벌기 똥똥
- 갯피벌기 똥똥
- 우리 집에 불 없다
- 날레 와서 밝혀라.⁵¹⁾

<개똥벌레를 부르며>

- c. 앞집 방아 딸깍딸깍
- 뒷집 방아 딸깍딸깍
- 짙어 내니 쌀이요
- 하어 내니 밥이요
- 먹고 나니 자미요
- 누고 나니 똥이요.⁵²⁾

<방아깨비를 붙잡고 춤추길 바라며>

- d. 아침 먹이 짙여라
- 저녁 먹이 짙여라
- 우리대 아씨 흰떡방아
- 건너집 처녀 보리방아
- 네가 내신 짙여라.⁵³⁾

<방아깨비를 붙잡고 춤추길 바라며>

- e. 너겨매온다 밥해라
- 너가배온다 밥해라
- 너겨매온다 밥해라
- 너가배온다 밥해라.⁵⁴⁾

<게를 붙잡고 거품을 내게 하며>

注 50) 任東權; '韓國民謠集'(東國文化社, 1961) 謠 1392.

51) 同上, 謠 1424.

52) 同上, 謠 1405.

53) 同上, 謠 1406.

54) 任東權; '韓國民謠集Ⅲ'(集文堂, 1975) 謠 1501. '계謠'라고만 밝혔을 뿐, 별다른 解說이 없지만, 歌意로 보아 게를 붙잡고 거품을 내게 할 때 부르는 童謠임이 분명하다.

f. 좋아하는 올라가고
 매암이는 내려오너라
 여기는 이슬이 꿀맛같단다.⁵⁵⁾

<매미 내려오라고>

여기 例謠들이 모두 意圖的 選擇인 것은 아닌데도 a,b,c,d,e,f 등의 本土 童謠는 A,B,C,D,E,F 등의 濟州島 童謠와 對比해 볼 때, 有價的·實利的 表現이 아니다. 濟州島를 포함한 全國의 童謠 蒐集이 아직은 初步段階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昆蟲謠에만 偏重, 例示했기 때문에, 이쯤의 對比로써 그렇다 할 結論에 이를 수는 없으나, 濟州島 童謠인 경우 現實主義的 性格이 짙은 듯이 보인다.

童謠 가운데 諷笑謠인 ‘이 빠진 애를 놀리는 노래’를 例들어 더 살피기로 하자. 任東權 교수의 ‘韓國民謠集’을 보면, 韓本土의 ‘우는 아이謠’가 4篇 나란히 收錄되어 있는데, “닭의 똥구멍 벌어진다/닭의 똥구멍 벌어진다”(謠 1741) “안동나발 벨벨/서울 나발 벨벨(謠 1742) “우동백이 짜동백이/똥두꺼비에 구력함미”(謠 1743) “울든재이 깃든재이/마추아래 수캐부랄이/덜렁덜렁 하네”(謠 1744)等 實利性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데 비하여 拙著 ‘濟州島民謠研究·上’에는 3篇이 收錄된 가운데 實利的 傾向의 것이 더욱 드러난다.

울던 장물레비
 고린장 한 사발 주십서
 식은 밤에 조창 먹엇당
 개똥밭되 짐질메여 주쿠다.⁵⁶⁾

語釋 : 울던 강구벌레
 고린장 한 사발 주시오
 식은 밤에 조치개로 먹었다가
 개똥밭에 기움 매어 주겠소.

注 55) 任東權; ‘韓國民謠集’(東國文化社, 1961) 謠 1469.

56) 拙著; 前掲書, ‘애를 놀리는 노래’ 謠 1317.

‘고린장’은 눈물의 諷喻的 表現이다. 비록 諷笑하는 童謠 속에서이지만 ‘고린장’(눈물) 한 사발인들 無償으로 먹겠느냐는 것이다. 자그만 ‘신세라도 무엇을 마뚝지 않게 지겠느냐는 意志와, 신세를 진다면 그게 그 質量으로 보아 참 하잘 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기어코 갓고야 말겠다는 自立·自強的 哲學이 배어 흐른다. ‘三多의 섬’ 濟州에서는 일해야 살지 일을 안 하다가는 죽는다는 哲理가 島民 모두의 生理로 굳어졌다.

자그만 負債나마 切齒하며 지지 않으려는 이 處女같은 志操는 自立·勤勉·不敗의 裏面인 것이다. 형편없이 시달리면서도 까물어져 사그라짐이 없이 不死島처럼 다시 일어나 生死戰線으로 곧두박질하는 지긋지긋한 勝利인 것이다. 自主와 勤勉, 그리고 不敗의 意志는 現實主義的 生活觀에 낳은 것이다.

Ⅲ. 結 論

筆者는 지금까지 濟州島 民謠, 특히 勞動謠와 童謠를 대상으로 濟州島의 時空的 與件에 비추면서, 그 生活觀을 究明해 왔다. 濟州島 特有的 地理·歷史的 惡條件은 이 섬의 民謠를 哀愁와 悲痛으로 물들여 놓았는데, 島民들은 아주 敗北하고 까무러쳐 버리지 않았을 뿐더러, 드디어 불과 같은 忍苦와 ‘外虛內實’을 배워 不敗의 意志를 낳았으니, 이것은 實利主義的 生活觀임을 보아 왔다. 이제까지의 論述을 總括하여 要約·整理해 본다.

(1) 民謠는 化石化된 게 아니라, 싱싱히 살아 있으면서 오늘날의 民衆 生活와 直結된다.

濟州島 民謠 속에 드러난 生活觀의 考究란 至難한 課題다. 韓國 民謠의 全般的 蒐集이 아직 遼遠하며, 濟州島 民謠 篇篇 속에는 濟州地域의 生活 文化 全般이 縮約되어 있으므로, 그 隣接科學의 成長이 不振한 現時點에

서는 참다운 分析作業이 이루어질 수 없겠기 때문이다.

(2) 民謠의 特徵은 가장 民衆의이며 自足的이요, 機能的 色彩가 짙은가 하면, 한 지역의 民謠는 그 地域住民의 生活觀과 特異性을 짙게 드러낸다.

民謠의 本領은 勞動謠다. 具體的 用途에 따라 民謠가 불리어진다고 볼 때 모든 民謠는 勞動謠로 擴大 解釋할 수 있다. 이것은 民謠가 지닌 그 機能力이 創作文學이나 他 口碑文學에 비해 優越하다는 立證이다.

濟州島 民謠에 드러난 生活觀이 現實主義的 傾向이 짙다고 한다면, 그것은 島民들이 時空의 惡條件에 시달려 왔기 때문일 것이다.

島民들은 農土가 瘠薄하여 零細性에 허덕이며, 強風·豪雨·旱災 等 三災에 시달리는 등, 주어진 地理的·自然的 環境은 심히 不利하다.

그 歷史的·社會的 與件 역시 重疊되는 收奪과 橫暴 속에 被壓되어 왔으니, 官吏 및 土豪의 收奪과 橫暴, 中央政府의 등쌀, 苛酷한 貢賦, 難堪의 賦役, 倭寇의 侵害, 蒙古의 侵奪 등을 열거할 수 있다.

(3) 제주도 민요는 韓國民謠 全般과 對比할 때 勞動謠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제주도의 勞動謠가 質·量 모두 秀逸한 까닭은 地瘠民貧으로 인한 島民의 鐵石 같은 勤勉性和 더불어 멧뜰·방아노래와 海女노래 등이 多量 배어나게 傳承되기 때문이다.

勞動은 有償行爲이므로, 濟州島 民謠에 勞動謠가 壓倒的으로 많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 現實主義的 生活觀이 짙다는 말이 된다.

(4) 제주도 민요의 內容을 분석해 보거나, 그 表現技倆을 살펴 볼 때 現實主義的, 寫實主義的 傾向이 짙다.

具象的 明確性 및 解明性·寫實性이 많은 민요에 짙게 깔려 있다. 도민들은 慘憺과 悲痛에 부딪치면서도 까무러치지 않고 끝내 不敗의 信念을 간직한다.

도민들은 악착스레, 外實內虛보다 外虛內實을 택하는 경향이 민요 속에 엿보이는데, 그것은 現實主義的 意識의 具現이다.

(5) 제주도 동요(‘짐승과 벌레노래’중심)를 보면, 有償의 行爲 勸誘가 韓本土의 동요에 비해 그 비율이 높은 듯하다.

有償의 行爲 勸誘의 노래가 濟州島 童謠 가운데 흔한 게 사실이라면 이 또한 島民들의 實利的 生活觀의 反映이 아닐까.

本稿에서는 濟州島 民謠에 드러나는 生活觀 가운데 그 現實主義 意識을 몇 가지 角度에서 抽出하여 왔고 그 時空의 背景을 살펴 왔다. 그러나 이 作業은 至難할 뿐더러 限界點들이 가로놓였음을 冒頭에서 前提한 바 있다. 더구나 이러한 作業 遂行이 바람직한 歸結을 얻기 위해서는 韓國人의 意識 構造는 과연 어떤 것이며 濟州島民性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源泉의 考究가 先行되었어야 할 것이며, 民謠의 性格과 韓國民謠의 特質 究明이 철저히 이루어졌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論議의 限界性을 거듭 느낀다.

또한 本稿에서는 줄곧 濟州島 民謠에 나타나는 그 現實主義的·寫實主義的 側面에만 視界를 局限해 온 더인데, 이에 對比되는 바, 理想主義的·浪漫主義的 側面에도 눈길을 돌려야 할 것이다.

루트·베네딕트(Ruth Benedict)는 그의 ‘菊花와 칼’(‘The Chrysanthemum & the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1946)이란 名著 속에서 日本의 文化型을 ‘菊花’와 ‘칼’이라는 極端的 象徴으로써 표현한 바 있는데, 우리는 이에 注目할 필요를 느낀다.⁵⁷⁾

注 57) 俳優와 藝術家를 존경하며, 菊花를 가꾸는 데 신비로운 技術을 가진 耽美主義를 숭배하는 국민에 관한 책을 쓸 경우, 동시에 이 국민이 칼을 숭배하며 武士에게 최고의 영예를 돌린다는 사실을 기술한 또 다른 책에 의해 그것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일은 일반적으론 없는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모순이 일본에 관한 책에는 날줄(經)과 씨줄(緯)로 되어 있다. 그러한 모순은 모두가 진실인 것이다. 칼도 菊花도 함께 한 그림의 部分인 것이다. 일본인은 최고도로 攻撃的이자 非攻撃的이며, 軍國主義的이자 또한 耽美的이며, 不遜하면서도 禮儀 바르고, 頑固하면서도 適應性이 풍부하며, 柔順하면서도 귀찮게 시달리

論議對象을 濟州島 民謠에 국한하고 島民들의 生活觀만을 문제삼는다 하더라도 여러 論點에서 分析할 수 있다. 歌詞 內容의 題材와 主題에 따른 考究도 있을 수 있으며, 外國의 民謠와 對比하면서도 考究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모든 課題는 後日로 미루어 둔다.

면 憤慨하며, 充實하면서도 不充實하며, 勇敢하면서도 겸장이며, 保守的이면서도 새로운 것을 즐겨 맞이한다. 그들은 自己 行動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놀랄 만큼 敏感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잘못된 行動을 모르게 될 때는 범죄의 유혹에 지고 만다. 그들의 兵士는 철저히 訓練되지만 또한 反抗的이다.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 the Sword*—*Pattern of Japanese Culture*, Boston, 1946)

參 考 文 獻

- 高晶玉；‘朝鮮民謠研究’(首善社，1949)
- 金尙憲；‘兩槎錄’(1601)
- 金素雲；‘朝鮮口傳民謠集’(中央公論社，1936)
- 金榮敦；‘濟州島民謠研究上’(一潮閣，1965)
- 金 淨；‘濟州風土錄’(1520)
- 徐廷柱；‘詩文學原論’(正音社，1975)
- 李 健；‘濟州風土記’(1628)
- 李元鎮；‘耽羅志’(1693)
- 任東權；‘韓國民謠集’(東國文化社，1961)
- 任東權；‘韓國民謠集Ⅱ，Ⅲ’(集文堂，1974)
- 趙東一；‘敘事民謠研究’(啓明大學 出版部，1970)
- 濟州道教育委員會；‘耽羅文獻集’(1976)
- 玄平孝；‘濟州島 方言研究，第一輯，資料篇’(精研社，1962)
- 柳田國男；‘民謠覺書’(創元社，1940)
- 棚瀬襄爾；‘文化人類學’(弘文堂，1951)
- 淺野建二；‘日本の民謠’(岩波書店，1974)
- 町田嘉章・淺野建二；‘日本民謠集’(岩波書店，1973)
- J. Jillin; *The ways of men, an Introduction to Anthropology*(1948)
- Saintyves; *Manual de folklore*(Paris, 1936)
- Herbert Read; *The Phases of English Poetry*(London, Faber and Faber 1948)
- T. Hilding Svartengren; *Intensifying Similes in English*(Gleerupska universitetsbokh andeln, London, 1918)
- Ruth Benedict; *The chrysanthemum and the Sword*(Boston, 1946)
- Ruth Benedict; *Patterns of Culture*(London, 1950)
- René Welleck and Austin Warren; *Theory of Literature* (London, 1970)
- R.G Moulton; *The modern Study of Literature* (Macmillan and Company, 本多顯彰 譯, 1958)

SUMMARY

A Study on Mental structure of Cheju-Do Islander reflected in Cheju-Do folk song

Kim Young-Don

The folk song is not fossilized, but it remains alive vividly and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life of the public.

The mental structure of Chejudoians reflected in the folk song is extremely hard to research. The complete collection of the folk songs is far more remote yet, and at the same time in each of the Cheju-Do folk songs, the whole culture of life is permeated. That is because the slow growth of the neighboring sciences makes impossible the analysis of the folk songs.

The characteristics of folk songs are the most popular among people and self-satisfactory. Moreover it strongly plays a functional role. And also the folk songs of one region express clearly the mental structure and peculiarity of its people. The folk song originated from the work song. If the folk songs are considered to be sung when they are concretely needed, all the folk songs can widely be interpreted as work songs. This proves that folk songs are superior to other fields of literature such as creative literature and oral literature in their functions.

Almost all Cheju-Do folk songs are work songs when compared with the whole of Korean folk songs. The resolute industry of the inhabitants of this Island and the transmission of songs sung when grinding grains in large numbers made the Cheju-Do folk songs super excellent both in number and quality. The fact that an overwhelming number of the Cheju-Do folk songs are work songs means that they are extremely actualistic in their true sense of the word.

The content analysis of the Cheju-Do folk song reveals that they are actualistic and realistic as well.

The same is true with the technique of expression. The concrete definiteness, vividness, and realism underlie all of the Cheju-Do folk songs. The inha-

(40)

bitants living on this Island have an unyielding belief even though they have suffered from misery and sorrow. As a whole they prefer substance to appearance, which is the manifestation of their realistic awareness.

As compared with those of Korea proper, there seem to be more Children's songs which show a stronger desire to reward to the animals and insects. And if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Childeren's songs like this, can't it be said that they reflect the utilitarian awareness of the inhabitants here?

If it is true that the mental structure of the inhabitants revealed in the Cheju-Do folk songs is considerably realistic, It is 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many difficulties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time. The barren farmland and left the inhabitants of this Island petty farmers and the geographical and natural conditions such as the strong winds, heavy rain, and drought made taught them how to survive through miserable conditions.

Their historical and social conditions were also suppress by the heaps of exploitation and oppression. To speak more concretely, they suffered a lot from exploitation and oppression by the officials and the landed proprietors, the naggings of the central government, the harsh offerings to it, hard compulsory labor, the invasion of Japan, and the pillage of the Mongolians.